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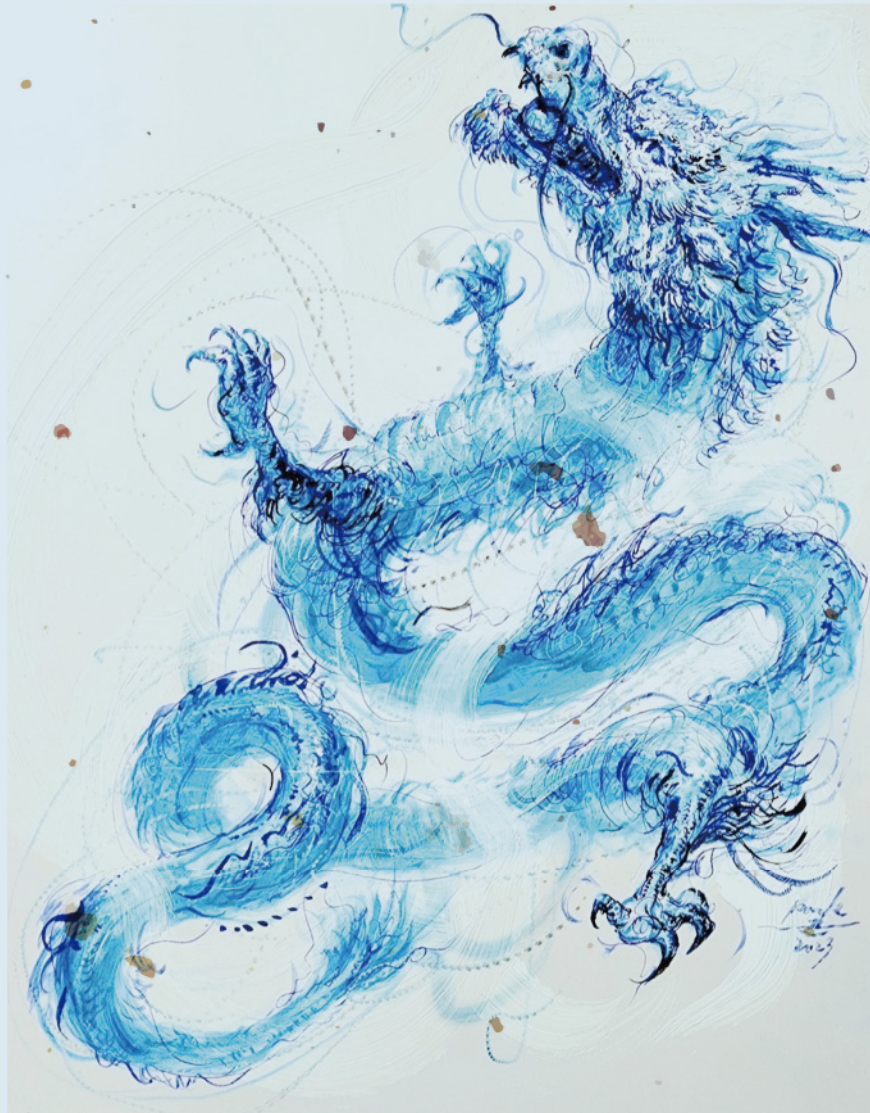
VOL.3  
2024. 2.

성신-임명섭

# 한국학 회보

*Sungshin-Lim Myungsub*

*Journal of Korean Studies*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 목 차

2024. 2. VOL.3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류와 한국학 4**

Korean Wave and Korean Studi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이형민 Hyungmin Lee

◆ **인종차별과 낙인찍힌 몸의 역사 6**

The history of racism and stigmatized bodies

염운옥 Un-Ok Yum

◆ **이종결합 융복합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존 12**

Interdisciplinary Fusion Era:  
The Coexistence of Human and Machines

김홍기 Hongki Kim

표지: 박영근 화가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17**

Infinite Challenge Towards the World

서경덕 Kyungdeok Seo

◆ **디지털 인문학, 언어가 숫자로  
변할 때 20**

Digital Humanities, When Words Turn to Numbers

김일환 ILhan Kim

◆ **미중관계로 본 한반도의 미래 24**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lens of U.S.-China relations

홍석률 Seokyeul Hong

◆ **임명섭 글로벌 라운지  
오픈 60**



◆ 성신여자대학교,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  
국내 여대 2위 28

◆ SUNGSHIN GLOBAL  
REPORTER 2024 spring 31

◆ 내적 정결성과 부끄러움의 미학  
— 중국 연길과 용정의 윤동주 42

The Aesthetics of Inner Purity and Shame

강진호 Jinho Kang

◆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 52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Vietnam and  
Korea

응웬 김 장미 Nguyễn Kim Trang My

◆ 일본사회의 민족적 배타주의와  
3세대 자이니치 55

Chauvinism in Japanese Society and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i

김예니 Yeni Kim

◆ 부초(浮草)처럼 떠도는  
시·공간의 순례 58

A Pilgrim of Time and Space Wandering Like  
floating Weeds

방금단 Geumdan Bang

◆ 연구비 신청 안내 61

Research grant application guide

인쇄 ·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이성근 편집인 강진호  
발행처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주 소 서울 성북구 보문로34 다길2  
성신여대 수정관B동 718호  
인 쇄 제이앤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류와 한국학

2023년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답답하던 마스크와 안녕을 고하고, 늦은 밤까지 음식점과 주점에 삼삼오오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 콘서트장 등에 모여 한목소리로 크게 소리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 뜸했던 국가 간 왕래가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억제되었던 욕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되면서 해외 여행과 소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조직 차원의 공무와 업무에 있어서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발한 교류와 왕래가 일어나고 있다.

2023년 한 해 우리 성신여자대학교의 국제교류사업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이고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우리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중국, 대만, 몽골,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 방문하여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주셨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여러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반갑게 이야기 나누면서 느꼈던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와 소통이 제한되었던 시기를 겪으며, 해외 국민들의 한류에 대한 애정과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응축적으로 증폭되어 왔음을 많이 느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한국 유학박람회는 흡사 K-pop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축제와 환대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의 한국유학박람회는 일일 방문객이 1,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낯선 복장의 학생이 제법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물으니 한국 드라마와 K-pop을 통해 혼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정이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관심으로 진화하는 산 증거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직접 보고 느낀 바와 의하면, 한류와 한국학의 국제적인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멀리서 그리워만 했던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요즘,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들과 만날 것인가?

2024, 청룡의 해를 맞이하며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장 이형민



## Korean Wave and Korean Studi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year 2023 will be remembered as a monumental time when we started enjoying our normal lives again with the official cessation of the COVID-19. Now, we can walk the streets without wearing stuffy masks, we can stay late and talk with friends in restaurants and pubs whenever we want, we can get together and shout out loud in stadiums and concert halls. Our ordinary as well as spontaneous daily lives have finally returned.

Above all, it appears very meaningful that international mobility, which had been blocked and restrained by the COVID-19 pandemic, has resumed after all the years. Traveling and spending overseas are at an all-time high as individual desires that were suppressed in the pandemic situation have temporarily erupted. At an organizational level,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traffic are also taking place for work and public affairs.

In 2023, Sungshin Women's University'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were even more dynamic and breathless than ever. Various members of our university visited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such as Indonesia, Vietnam, Uzbekistan, Thailand, China, Taiwan, Mongol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carry out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In addition, countless guests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ed our university. I felt overwhelming joy while meeting and talking with such guests in person as opposed to merely seeing them online during the pandemic.

After the pandemic, public interest in and affection for the Korean Wave and Korean studies at a global level have been amplified to a large extent as a result of restriction and limitation in actual and face-to-face exchanges we have experienced over the years. In Jakarta, Indonesia, the Study-in-Korea Expo was held in an atmosphere of festival that resembled a K-pop concert. The same event held in Taipei, Taiwan was so crowded that it had nearly 1,500 daily visitors. It is no more surprising when a student in an exotic outfit with different skin colors is greeting in fairly fluent Korean. When asked how she could speak Korean so well, she said she learned Korean by herself through Korean dramas and K-pop. It is a living proof that the passion for Korean popular culture evolves into academic curiosity and interest in the country of Korea and Korean culture in general.

At least from what I have seen and experienced so far, the international demand for Korean Wave and Korean studie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When we are able to meet each other again, who have long missed each other from afar, and when those who like and want to learn Korea are visiting us again, what will we prepare and how will we deal with them?

**At the beginning of 2024.**

**HyungMin Lee (Ph.D. Dean, Office of International and External Affair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인종차별과 낙인찍힌 몸의 역사\*

염운옥 |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 1. 현재진행형의 인종주의

2020년 5월 25일 인종폭력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는 백인 경관에게 목이 눌리는 동안 “숨을 쉴 수 없어(I can't breathe)”라고 계속해서 외쳤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플로이드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그가 ‘흑인’이라는 조건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죽음이었고, “숨을 쉴 수 없어”라는 절규도 처음이 아니었다. 2015년에도 에릭 가너(Eric Garner)가 뉴욕에서 불법 담배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로 사망했다. 가너 역시 목이 눌린 채로 이 말을 11번이나 토해냈다.



미국에서 아직도 흑인들은 구조화된 인종차별 아래 놓여있다. 한편에서는 피부색 차별은 이제 극복됐다며 ‘컬러블라인드니스(colorblindness)’를 말하지만, 여전히 흑인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할 확률이 백인보다 몇 배나 더 높고, 교도소 재소자도 흑인이 훨씬 더 많다. 교육과 직업의 기회도 결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2020년 여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이하 BLM)”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고, 전 세계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플로이드와 가너가 외친 “숨을 쉴 수 없어”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들이 의식을 잃기 전까지 반복해서 힘들게 내뱉은 이 마지막 말은 목을 죄는 물리적 압박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백인우월주의가 가치의 기본값으로 공기처럼 스며있는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 멸시, 혐오는 상존한다. 목을 누르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편히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간접적이고 ‘완만한 폭력(slow violence)’으로서 구조적 인종주의가 작동한다. 플로이드의 마지막 8분 46초는 카메라에 담겼지만, 천천히 가해지는 폭력은 보이지도 않는다.

인종분류와 인종범주의 비과학성에 비춰본다면, ‘흑인’, ‘백인’, ‘황인’ 같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흑인의 피가 조금만 섞여도 흑인으로 분류하는 ‘한방울 법칙(one drop rule)’에서 보듯이 인종분류와 인종범주의 자의성과 비과학성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저자의 저서 『낙인찍힌 몸』(돌베개, 2019)와 논문, 「‘죽여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 인종혐오와 동물화-」, 『사총』 105호(2022.1), 439~473쪽과 「배제의 정치학: 인종주의, 국민주의와 불안전의 (재)생산」, 『황해문화』 110호(2021 봄), 93~110쪽을 한국학 휘보의 취지에 맞게 수정,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다. 인종은 생물학적 실재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구성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백인’, ‘흑인’ 같은 인종적 구분의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인종주의를 발견하는 도구로서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흑인의 동물화를 재생산하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웃음과 버무려 혐오를 표출함으로써 흑인의 동물에 가까운 열등함과 그런 존재에 대한 혐오가 마치 자연스러운 감정인양 정당화하는 작용을 해왔다. 다른 몸을 가진 인간을 동물에 가까운 경계적 존재로 놓고 전시하는 프리크쇼(freak show), 백인 배우가 블랙페이스(blackface) 연기를 하는 흑인 캐릭터 짐 크로(Jim Crow)가 출현하는 민스트럴쇼(minstrel show)를 통해 인종혐오는 웃음과 결합하고, 마치 자연의 이치에 맞는 당연한 감정인양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 1900년 민스트럴쇼 블랙페이스 (출처: Wikipedia)

## 2. 인종주의와 낙인찍힌 몸

근대 인종주의가 탄생하고 국가체제와 결합이 시작된 곳은 서양이었다. 인종주의란 타자의 행위가 아니라 속성에 근거해 그를 분류하고, 측정하고, 가치를 매기고, 증오하고, 심지어 말살해온 근대 서양의 이데올로기이다. 인간을 인종이라는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우열을 매기고 차별하는 명분을 만들어온 원리가 인종주의인 것이다. 고전적 인종주의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여러 특징으로 내면을 상상한다는 것이다. 나와 너,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피부색, 두개골, 골격 같은 생물학적 속성으로 환원시켜 타자의 몸에 대한 온갖 부정적 담론을 증폭시켜 간다는 데 인종주의의 핵심이 있다. 눈에 보이는 ‘외모’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혈통’과 ‘지성’을 상상하고 우열을 매기는 데서 인종주의는 출발했던 것이다.

‘낙인찍힌 몸’이 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흑백 분리를 명분으로 흑인이 낙인찍힌 몸이 되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 각지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강제이주당한 이주민들이었다. 국가 없이

떠돌던 유대인은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도래하고 근대 국가 체제가 굳건해지면서 유대인은 종교적 타자가 아니라 인종적 타자로 발명되었고 개종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생물학적 운명이 되었다. 구식민지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무슬림 이주민은 이슬람포비아라는 신(新)인종주의에 의해 테러리스트라는 부당한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인은 오랫동안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었고,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 이후에는 질투와 경멸이라는 양가적 감정의 분출 대상이 되어왔다. 20세기 대량 이주와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은 무국적자, 비국민으로 분류되어 차별을 겪었다. 흑인, 유대인, 무슬림, 아시아인, 이주민, 난민은 국민국가 안에서 인종화된 몸을 부여받은 타자들의 이름이었다.

### 3.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한국사회는 결코 인종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피부색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제도적 인종주의 등 여러 층위의 인종주의들이 존재한다고 진단할 수 있다. 2020년 8월 블랙페이스 논란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피부색 인종주의가 표출된 사건이었다. 가나 출신 연예인 샘 오취리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난에 오취리가 사과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안타까운 결과였다. 한편 2018년 봄 예멘 난민 561명이 제주도에 입국하고 벌어진 사태는 이슬람포비아가 표출된 사건이었다. 더구나 예멘 난민 다수가 무슬림 남성이라는 사실은 이슬람포비아와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매우 낮아 2017년 1.51%에 불과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29.9%이다. 예멘난민을 둘러싸고 난민반대와 난민환영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는 당연히 해야 할 난민법에 따른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한 채 국민우선주의에 휩쓸리며 이슬람포비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난민문제가 국민과 비국민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면, ‘다문화’ 담론은 국민 내부로 들어온 인종적·종족적 타자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도 당사자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가 앞섰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국제 결혼은 국가 인구 정책 및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권장된 측면이 강했다. ‘농촌총각’의 배우자로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일에 국가는 적극적이었고, 그렇게 들어온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다문화가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더 이상 순혈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 ‘혼혈가족’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되었다. 이민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위치는 특별하다. 정착이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주를 허용받고 있는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성의 자녀를 출산할 ‘미래의 어머니’로 자리매김됐고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정주권을 신청할 때도 자녀가 있어야 유리했다. 결혼이주자는 완전한 국민이 아닌 ‘국민의 가족’으로 구분되며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자는 ‘다문화 정책’을 통해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지만, 그마저도 아닌 ‘버려진 존재’가 이주노동자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으로 전체 인구 중 약 5%에 달한다.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약 50만 명으로 체류외국인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렸던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해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실상의 무권리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종차별, 성폭력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가 없다. 퇴직금은 출국 후에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숙식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20년 12월 20일 영하 16도 한파에 전기 난방이 끊긴 경기도 포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씨가 사망한 일은 한국 거주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불안전에 내몰리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속행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나온 말이 아니라 지난 4년간 계속 외쳐 왔던 구호였다. 54일간 장마가 이어진 2020년 여름 홍수 때 이재민의 80%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이주노동자였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숨진 이주노동자 비극, 막을 수는 없었나  
(출처: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64>)

#### 4. 차별을 넘어 연대와 환대로

오늘날 인종혐오와 배제의 대상은 비단 흑인만이 아니라 무슬림, 난민, 이주민으로 확장되어 있다. 흑인이 먼저였을 뿐 누구나 난민이나 이주민이 되고, 노동시장에서 죽음에 내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연대와 환대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 공유하는 신체적 취약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장하는 일, 낯선 이와 공존을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념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선주민 노동자는 국민 중심의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이주노동자와 연대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면 그 혜택은 선주민 노동자에게도 돌아간다. 장애인 이동권운동이 20년간의 싸워온 결과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비장애인인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배척하는 대신 지금 여기 함께 있음에 주목하고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거주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차별을 넘는 연대와 환대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The history of racism and stigmatized bodies

Un-ok Yum | Resear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It was in the West that modern racism was born and its collusion with the state system began. Racism is a modern Western ideology that categorizes, measures, values, hates, and even exterminates others based on their attributes, not their behavior. It is the principle that has created a rationale for categorizing, hierarchiz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human beings based on the arbitrary criteria of race. At the core of classical racism is the idea of imagining an internal world based on external characteristics. The core of racism is to amplify all kinds of negative discourses about the other's body by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you, the subject and the other to biological properties such as skin color, skull, and skeleton. Racism started by imagining and ranking invisible 'descent' and 'intelligence' from visible 'appearance'.

Korean society has never been free of racism. It can be diagnosed that there are several layers of racism, such as skin color racism, cultural racism, and institutional racism. The blackface controversy in August 2020 was a manifestation of deep-rooted skin color racism in Korean society. Despite the legitimate question raised by Sam Okyere, a Ghanaian entertainer, it was unfortunate that the controversy ended with Okyere apologizing in the face of public criticism. Meanwhile, the incident that took place in the spring of 2018 when 561 Yemeni refugees entered Jeju Island was an event that expressed Islamophobia. Moreover,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Yemeni refugees were Muslim men raised concerns about Islamophobia and women's safety. South Korea has been accepting refugee applications since 1994, but its refugee admission rate is very low, at just 1.51% in 2017.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the world's averag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29.9%. As anti-refugee and pro-refugee sentiment clashed over Yemeni refugees, the state failed to implement a neutral and fair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Act, as it should have, and was swept up in nationalism, leading to a rise in Islamophobia.

If the refugee problem arises at the border between nationals and non-nationals, the "multicultural" discourse is a question of how to integrate ethnic and racialize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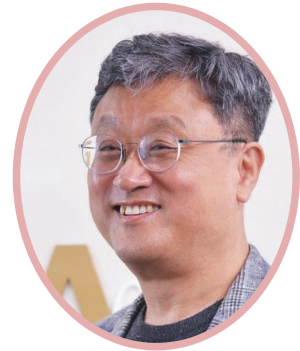
into the nation. In this area as well, the policy goals pursued by the state, not the human rights of the parties, were ahead. In this area as well, the policy goals pursued by the state, not the human rights of the parties, have taken precedence. Since the 1990s,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been encourag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part of the national population policy and measures for low birth rate. The state has been active in arranging marriages with Southeast Asian women as spouses for "rural single man," and the migrant women were subject to the "multicultural" policies. The new family form, the so-called "multicultural family," became another name for the "mixed-blooded family" in Korea, where pure blood custom can no longer be maintained. The posi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as immigrants is special. They are the only immigrants allowed to settle in South Korea, a country that does not allow settled immigration in principle. However, marriage migrants were positioned as "future mothers" who would give birth to Korean men's children, so having children was an advantage when applying for residency after marriage. Marriage migrants are categorized as "family members of the people" rather than full citizens and are subject to exclusionary integration.

Today, the targets of racial hatred and exclusion are not only black people, but also Muslims, refugees, and migrants. There is a constant possibility that anyone can become a refugee or migrant and be driven to death in the labor market, only for black people to come first. In order to find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and hospita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erception that everyone is safe based on the physical vulnerability shared by humans, and to newly conceptualize the coexistence with stranger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Indigenous workers should be wary of national-centered selfishness and seek a path of solidarity with migrant workers. Whe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small businesses with five or fewer employees are protected, the benefits flow to native workers. It is the same way that elevators in subways are now accessibl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fter 20 years of struggle by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Solidarity and hospitality that transcends discrimination is not impossible if we start with the recognition that we are all residents of Korean society, regardless of where we come from, and that we are all here together.

## 이종결합 융복합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존

김흥기 |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 교수

세상 많이 변하면서 학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문학은 기계와 만나게 되고 또 자연과 만나게 되고 공학과 만나고 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종 결합은 결국 우리 학문을 살찌우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 최근 추세가 초연결 과학기술 혁명의 구조이다. 즉, 연결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책을 읽고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방은 ‘관점’을 의미한다. 다양한 도서를 읽으면서 이 방도 만들고 저 방도 만들어 결국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융복합 시대 무엇보다 요긴하다.



익히 아는 바처럼, 구글 검색 엔진이 스탠포드대학에서 베타 버전으로 나왔다. 알타비스타라는 검색 엔진보다 훨씬 좋아진 건데,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 보지 말고 데이터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 즉,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해 통찰력을 발휘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문을 하기보다,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가치있는 질문을 찾고 사고하는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여러 개의 방(관점)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관찰하는가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관찰적인 능력’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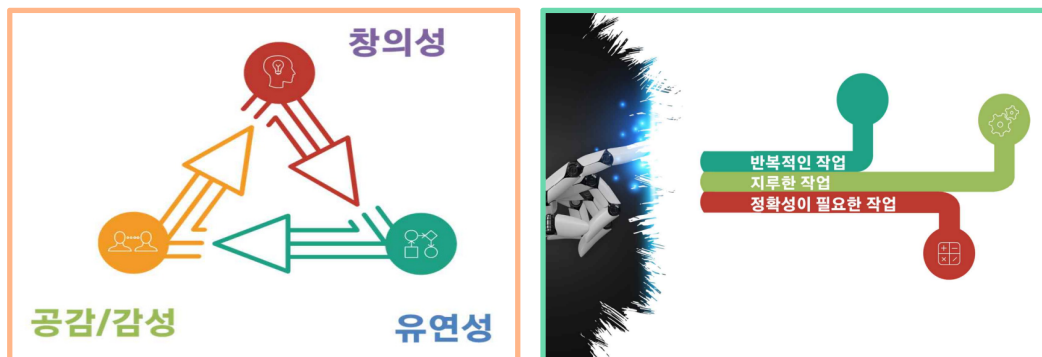


▲ 인간과 기계의 공존

융복합 시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학문에 대해 완전히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하고, 코딩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의 학문에 대해 완벽히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획력과 그것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대해서 알아야 하는 시대이다. 즉, 여러 개의 방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해 방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먼저 2~3개 정도의 뎀스(depth)를 가져라. 앞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조금씩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령, 문학도 좀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고, 생물학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이다. 하루하루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2~3개 정도의 뎀스(depth)는 있어야 한다. 최소한 1~2개 정도 혹은 2~3개 정도 이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통계학을 잘한다거나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잘 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깊이를 갖고 혜안을 가져라. 사람들과 연결해서 함께 뭔가 새로운 분야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혜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만의 무기를 장착하여라. 예전에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는 도서를 읽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 책을 읽고 든 생각은 ‘이 사람, 참 거짓말 잘 치는구나. 절대로 이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였다. 그 저자가 썼던 내용 중에서 한 80% 정도는 정말 뛰어나게 통찰력을 가지고 잘 썼지만, 한 10~20% 정도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쓴 글이었기 때문에 일정정도 불신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저자가 말하는 싱글래리티(Singularity)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기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협력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도서가 나오기 전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개의 방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들을 배워야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다. 지금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여러 개의 방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때 여러 개의 방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 융복합 시대의 힘

최근에 챗GPT를 포함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LLM)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너무나 많은 신기술이 나와서 대학 연구소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용하면/시키면 된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지금은 새로운 것을 이미 있는 곳에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예전에는 그 속에 있는 랭귀지도 알아야 하고 코딩도 다시 상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활용 단계가 쉽다. 새로운 것을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즉, 이제는 방을 잘 디자인 하는 사람/삶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방을 잘 디자인하자. 스스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 융복합 시대를 살아가자.

# Interdisciplinary Fusion Era: The Coexistence of Human and Machines

Hongki Kim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ld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blurring the boundaries of academic disciplines. In this process, the humanities encounter machines, interact with nature, and converge with engineering. In the midst of these changes, interdisciplinary fusion based on humanities will ultimately enrich our academic pursuits and, in turn, improve our lives. The recent trend signifies the structural revolution of the era of hyper-connected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making connectivity crucial. To achieve this, one must read books and create multiple rooms. Here, 'rooms' signify 'perspectives'. Building your own world by creating this room and that room while reading various book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this era of interdisciplinary fusion.

As widely known, Google's search engine emerged as a beta version at Stanford University. It outperformed search engines like AltaVista, but it is better to view it not just as a search engine but as part of the data industry. In other words, it is a world where data is money. Since understanding how to leverage insights about the future with data is crucial, it's necessary to study 'how to find valuable questions and think critically about them' rather than just acquiring simple knowledge. Ultimately, thinking about how to connect and integrate multiple perspectives or 'rooms' is crucial. From the perspective of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machines, understanding how to observe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computers and the structure of human society requires intuitive observational skills.

In the interdisciplinary fusion era, one of our challenges is overcoming compulsion that we need to know everything about a particular field. For instance, the belief that one must excel in computer programming and coding.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obsession to master a single discipline. What matters more is understanding how to plan and connect effectively. In other words, it is crucial to study methods for connecting and integrating multiple rooms. What specific efforts are needed?

Firstly, acquire depth in about 2–3 different areas. There is a need to have a bit of

knowledge in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computers, and biology. In a world where new information pours in every day, it is impossible to know and excel in everything. However, having depth in at least 2-3 areas is necessary. One should delve deep into at least 1-2 disciplines, or preferably more, to possess a certain level of insight. It is essential to have this depth to connect with people and lead in exploring new fields togeth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 farsighted vision.

Additionally, arm yourself with your own weapon. I once read Ray Kurzweil's "The Singularity is Near" before. At that time, my thought was, 'This person is really good at telling lies. Such a world will never come.' About 80% of what the author wrote had excellent insights, but about 10-20% seemed technically impossible or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technology, so I was somewhat skeptical. However, my perspective has changed now. Even if it is not the singularity that the author described, an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where 'machines and humans can coexist and collaborate.' This book was not released long ago, just a few years back. Therefore, we need to learn how to connect and integrate various rooms to keep up with the times. While explanations about the ro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prevalent, explanations about how to connect multiple rooms technically are not. Hence, the power to connect and integrate various rooms is essential, and for this, continuously equipping oneself with one's own weapon is more critical than ever.

Let's question ourselves about what abilities we possess, create our weapons through those questions, and thrive in the era of convergence.

##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서경덕 |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교수

이번 특강의 큰 주제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창의력과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좁은 국내 무대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활동하는 목표를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가수 김장훈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독도 및 동해 광고를 게재했던 사연, 배우 송혜교와 함께 뉴욕현대미술관(Moma), 보스턴 미술관, 토론토 박물관 등에 한국어 서비스를 기증했던 사연, MBC 무한도전 팀과 함께 진행했던 '전 세계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펼친 사연 등을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3가지를 청년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에티켓, 창의적 사고, 미친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영어 및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젠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들과 차별화 되는 아이템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할 두 번째 덕목입니다.



▲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로 행동에 옮기는 ‘미친 실행력’입니다.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해 보려는 ‘도전정신’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0대가 되면 이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남들보다 ‘잘 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강을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 글로벌 에티켓
- 창의적 사고
- 미친 실행력



▲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 Infinite Challenge Towards the World

Kyungdeok Seo | Professor, Sungshin Women University

The main theme of this special lectur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creativity and a spirit of challenge for our young people navigating the global era. In other words, it encourages setting goals to engage in activities on a broader global stage beyond the domestic context. To make it easier for students to understand, both I and singer Kim Jang-hoon shared interesting stories. These included experiences like placing advertisements about Dokdo and the East Sea in globally renowned media such as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and The Washington Post. We also donated Korean language services to museums like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in New York, the Boston Museum of Fine Arts, and the Toronto Museum, along with entertaining stories about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isine Project'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the MBC Infinite Challenge team.

I specifically emphasized three things for young people: global etiquette, creative thinking, and extraordinary execution. While acquiring English and a second language is important, I emphasized that, above all, one must possess basic global manners and etiquette to operate on the world stage. This is because fundamental character is the most crucial aspect. Moreover, the era of doing what everyone else is doing has come to an end. Efforts to find items that differentiate from others and create new ideas are required. In the current era of living up to 100, this would be the second virtue that our youth should possess. Agai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extraordinary execution' of putting creative ideas into immediate action. This is because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cultivating a 'spirit of challenge,' encouraging the pursuit of new things without fear of challenges, is more crucial than ever.

When you reach your 20s, it is good to find what you 'want to do,' but it is more important to find what you 'excel in' compared to others. Conducting a special lecture f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students on the essential aspects needed for this was a proud moment for me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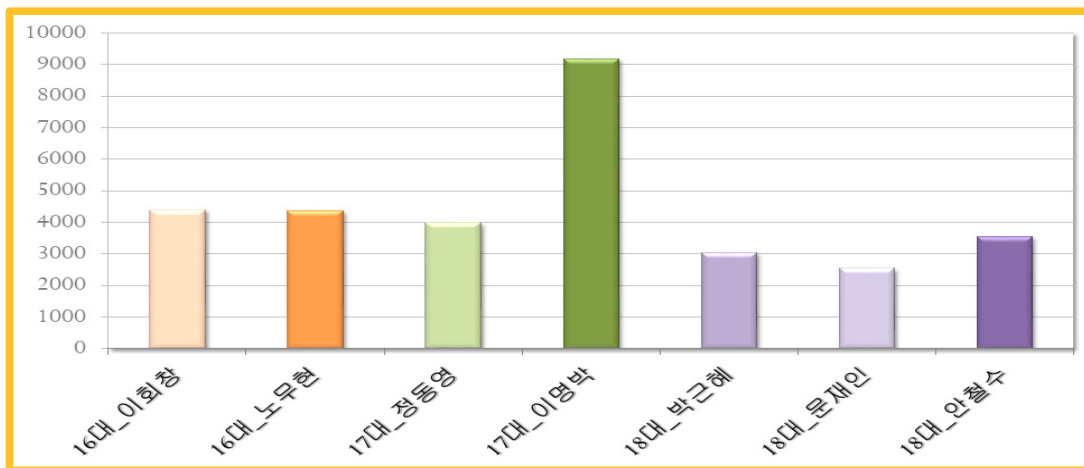
## 디지털 인문학, 언어가 숫자로 변할 때

김일환 | 성신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급변하면서 학문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융합과 통섭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학문적 방법을 보완, 대체하려는 시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문학에도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하면서 인문학의 대상도 단순한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로 재현된 대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디지털로 변환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연구의 대두라 할 수 있다.

텍스트가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정량적, 계량적 접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즉 언어의 빈도에 대한 정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단어에 대한 빈도는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단어의 빈도는 연중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도 한다. 다음 그림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집계된 당시 대선 주요 후보들의 사용 빈도를 보여 준다.



▲ 17대 대선, 주요 후보 사용 빈도

이 빈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선에 비해 17대 대선에서 두 후보 간의 사용 빈도 차이가 월등히 크다는 점이다. 빈도는 언중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7대 대선의 경우는 다른 대선에 비해 결과의 예측이 쉬웠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언어 사용 빈도를 활용해서 특정한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거나 트렌드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즉 상대 빈도와 통계적 척도(T-점수, Z-점수, 로그우도비 등)를 활용함으로써 대규모의 문서로부터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위의 그림은 1960년대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통계적으로 추출하고 그 결과를 워드클라우드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 키워드는 1960년대의 신문기사 전체를 1970년대의 신문기사 전체와 비교하여 얻은 결과로서 통계적인 키워드 방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키워드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한편 단순한 단어의 빈도뿐 아니라 어떤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출현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벡터(vector)’라는 가상공간 속에 단어의 출현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여 우겨넣는 ‘임베딩(embedding)’ 기법이 크게 각광을 받으며 우수한 분석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맥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단어의 의미가 문맥 혹은 분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1980년대에 ‘포도주’, ‘와인’과 한 문장 내에서 유의미하게 ‘함께 출현하는’(共起, co-occurring) 일반명사들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와인’의 빈도는 ‘포도주’의 빈도에 훨씬 못 미쳤고 그 결과로 공기하는 일반명사도 많지 않다.



## Digital Humanities, When Words Turn to Numbers

ILhan Kim | Professor, Sungshin women University

As the world rapidly changed to a digital world,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academic ecosystem.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humanities, where the emphasis on convergence and integration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attempts to supplement and replace existing academic methods. These changes tend to be inevitable to some extent,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This is because as the existing analog world transformed into a digital world, the humanities object also changed to a digitally reproduced object, not a simple real object.

As texts were converted to digital, quantitative and measurable approaches using computers began to be utilized in earnest, first of all, information about the frequency of language, which is how many times a word appears in a text. The frequency of words is important for linguistics, but it is also used in various fields because it reflects the interest of the audience.

What we can primarily confirm is that the difference in frequency of use between candidates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s much greater than in other presidential elections. Given that frequency reflects attention, the outcom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may have been easier to predict than other presidential elections. The frequency of language use can also be used to generate "keywords" for a particular field or to analyze trends. On the other hand, this frequency of language use can also be used to generate "keywords" for a particular field or to analyze trends.

Just because the world has changed dramatically does not mean that everything has to change. The humanities will still have their own values and importance. However, in the "digitalized" world, the scope and role of the humanities should be expanded more than before. Humanities scholars should speak up more than ever before about the values of humans, the problems of humanity, and the analysis and processing of human language in the digital world. Otherwise, if the humanities remain complacent and refuse to move beyond their past traditions and status quo, the day will inevitably come when the humanities will be suffocated in the name of convergence and integration.

## 미중관계로 본 한반도의 미래

홍석률 |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부상하는 신흥 국가가 자신감에 넘쳐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가 여기에 경계심과 두려움을 느껴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서술한 역사 책(『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 빗대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앨리슨은 2017년 출간한 책(『예정된 전쟁』)에서 북한 붕괴 사태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이 미중 사이에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는 타이완 문제처럼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쟁점이 되어왔다. 또한 미중관계의 변천은 언제나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투기디데스의 함정

미국과 공산화된 중국의 군대는 애초 직접 전투를 벌이며 격돌하였다. 바로 한반도에서 그랬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양한 나라들의 군대의 규모를 보면, 그 병력이 최고점일 때 미군은 30만 정도였고, 남한의 국군은 55만, 북한의 인민군은 39만, 중국군(중국인민지원군)은 무려 122만이나 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였다. 이 사실은 거의

잊혀져가는 듯 보였지만,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에서 ‘장진호’ 등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연달아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항미원조 전쟁’의 기억이 대대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 영화에서 남한의 국군은 물론 북한의 인민군도 비중 있게 나오지 않는다. 한국전쟁은 오직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만 묘사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전쟁 관련 영화들이 무수히 만들어졌지만 중국군은 이른바 ‘인해전술’로 새까맣게 물려오는 점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사가 있는 중국군이 나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존재했던 것을 지워버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방식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적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격돌했지만, 1970년대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여기에 연동되어 남북한 사이에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은 공식 수교하였고, 그 무렵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에 나섰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고, 탈냉전의 기운을 받아 양국은 1992년 공식적으로 수교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1979년부터 간접무역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수교 후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는데, 2012년 즈음에는 한국과 중국이 무역량이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무역한 양을 합친 것보다도 상회하는 상황까지 갔다. 미중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 1950년 피난길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 정전상태에 머물렀고, 군사적 긴장 상황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특히 199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핵 위기 과정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혈맹’이라 부르며 지원하고 있다. 남한은 중국이 제1의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관계를 고수 할 수밖에 없다. 남한과 중국은 관계 개선을 했지만, 북한과 미국은 많은 논란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한반도 분단 상태, 정전 상태의 현상유지를 추구해왔고,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러 시도는 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최근 협력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일 때에도 한반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쟁적, 적대적 관계로 계속 나아간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결코 밝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어떤 숙명론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을 때에도 이것이 곧바로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상황을 완전히 결정짓지 못했다는 역사적 경험과 패턴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미국과 중국의 수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도 문제이지만 내부 정치의 문제도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집단이 상대방을 친미파, 친중파로 매도하며 국내 정치적 갈등이 국제적 갈등과 무차별적으로 결합하여 증폭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19세기말 20세기초 한국은 이러다가 식민지화라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케르키라라는 폴리스에서 벌어진 비극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케르키라는 애초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대치 속에서 중립을 표방하던 폴리스였는데,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코린토스와의 갈등을 벌였다. 여기에 아테네가 케르키라의 편을 들어 개입했고, 이것이 스파르타와의 전면 전쟁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 케르키라에는 귀족파와 민중파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 귀족파는 과두정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스파르타를 지지했고, 민중파는 민주정인 아테네를 지지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30년 넘게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케르키라에서는 스파르타가 승기를 잡으면 귀족파가 득세하여 민중파를 학살하고, 반면 아테네가 승기를 잡으면 민중파가 귀족파를 학살했다. 내부 정치적 갈등이 국제적 갈등과 무차별적으로 결합하여 증폭되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투키디데스는 이러한 비극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제나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수천년이 지난 한반도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lens of U.S.-China relations

Seokyul Hong | Professor, Sungshin women University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lash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ld War international order, but in the 1970s, they began to improve relations in the atmosphere of détente. In conjunction with this, official inter-Korean dialogues bega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stablished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and from that time on, China began to reform and open. Since the Park Chung-hee regime, South Korea has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two countries offici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in the wake of the Cold War.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began in the form of indirect trade in 1979 and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2004, China became South Korea's number one trading partner, and by 2012, South Korea's trade with China exceeded that of South Korea's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mbined. The improvement in U.S.-China relations has undoubtedly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virtually maintained the status quo of a division and ceasefir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North and South Korea have made numerous attempt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that have failed to improve the situation. However, with China's rapid rise as a global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recently moved from a cooperative to a competitive relationship. The Korean Peninsula was never calm, even wh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Korean Peninsula's future will never look bright if we continue to engage in competitive and hostile relations. However, there is no need to take any fatalistic attitude toward this.

On the other hand, historical experience and patterns show that even wh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establish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it has not completely determined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on how Koreans respond and act. This is not only a matter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of internal politics. In particular, we need to be wary of a situation where domestic political conflicts are amplified by indiscriminately combining them with international conflicts, with groups with different political leanings labeling each other as pro-US or pro-China.

##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 국내 여대 2위, 35개국 800명 국제학생 재학, 역대 최다 인원수 기록



### ◇ QS 아시아대학 평가 239위... "글로벌 시민 역량" 중점 교육

성신여자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발표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239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소재 대학 상위 1.5%이자 국내 여대 2위, 서울 소재 대학 16위의 성과다. 성신여대는 지난 2021년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처음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후 "202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591~600위권에 오르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30%) △산업계 평판(20%) △교원 대(對) 학생 비율(10%) △국제 연구 협력(10%) △논문당 피인용 수(10%) 등 1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성신여대는 "2024 QS 아시아대학평가" 중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내 10위로 "학생 국제화 교육"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어 소통과 활용 능력 등 "글로벌 시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 등 문화적 포용력과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인재 육성이 핵심이다. 2023학년도 기준 신입생 인원수 대비 약 20%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 보내고 있다. 2023학년도 1학기에는 20개국 46개교에 105명, 2학기에는 16개국 51개교에 131명의 교환학생이 파견됐다. 2023학년도 하계방학에는 "한중일 아시아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14명, 동계방학에는 "한-아세안

공공외교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18명의 학생을 파견 예정으로 2023학년도에 총 468명을 해외로 파견 보내게 된다.

#### ◇ 다양한 국제화 노력…외국인 유학생 전용 국제학부 신설

재학 중인 국제학생은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어학연수 403명 △학부 251명 △대학원 146명 등 몽골·중국·베트남·일본·프랑스·독일·영국·브라질·멕시코·에콰도르·칠레·이집트·리비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5개국 출신의 총 800명의 국제 학생이 성신여대 캠퍼스에서 수학(修學) 중이다.

또 교육부 시행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도 9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인증대학"을 받았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중 9개교만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화 노력은 국내 정부 기관에서도 인정받았다.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 사업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GKS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생 사업 △우수 교환·초청 학생 사업 △한·일(韓·日) 공동고등교육 장학생 사업을 통해 국고 지원을 받아 총 53명의 정부초청장학생을 유치했다.



특히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는 하계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단기과정에 선정되어 국고로 일본의 13개 대학 재학생 20명을 초청하여 항공권, 체재비, 숙박, 프로그램비 등 전액 무료로 “K-뷰티로 완성하는 퍼스널 스타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본 학생에게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진의 강의와 K-뷰티 실습을 제공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성신여자대학교는 "한·중(韓·中) 합작 전공사업"을 많이 운영하는 대학 중 하나다. 현재 총 4개의 한·중 합작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한·중 합작 전공은 중국 교육부가 해외 대학의 선진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성신여대는 2012년부터 △하북과기대학교와 의류산업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산둥청년정치대학교와 뷰티산업학과 메이크업디자인전공을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중국 교육당국으로부터 △절강방직복장직업기술대학교 뷰티산업학과 메이크업디자인전공 △상해공예미술직업대학교와 디자인학과 제품예술디자인전공을 허가 받아 운영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한 양질의 국제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 성신여대는 2025년 3월 입학 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국제학부 신설도 준비 중이다. 국제학부는 △글로벌 한국학 △뷰티·패션디자인 전공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한국학은 "한국어교육" 과 "한국학" 트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학부는 한국어교육 트랙을 제외하고 100% 영어로 운영 된다. 성신여자대학교는 더 많은 국제학생 유치와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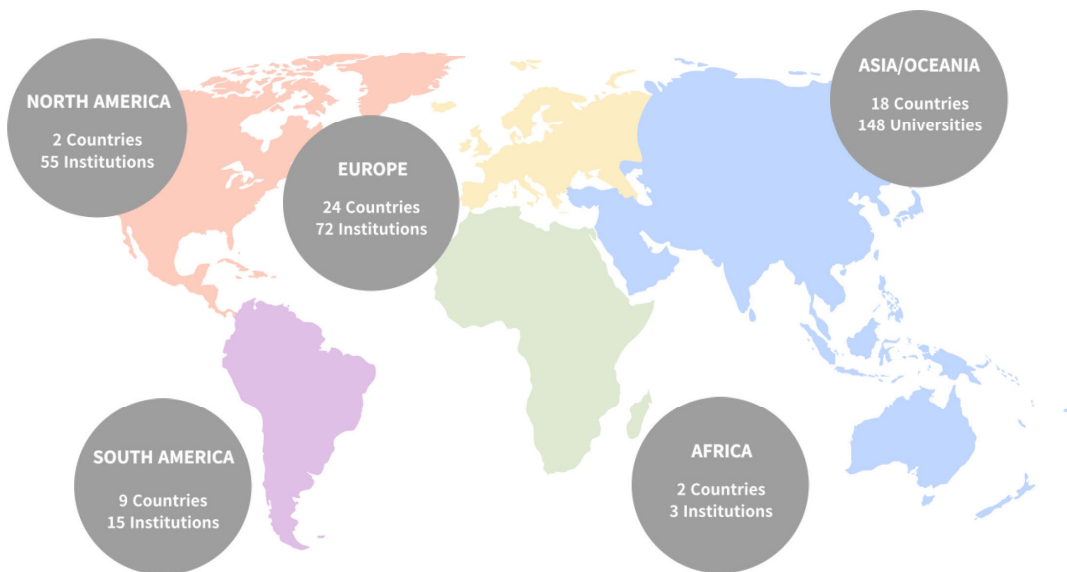
# SUNGSHIN GLOBAL REPORT

WWW.SUNGSHIN.AC.KR



2024 Spring


## - 290 PARTNER INSTITUTIONS IN 55 COUNTRIES -



01   
China  
78 Institutions

02   
United States of America  
47 Institutions

03   
Japan  
26 Institutions

04   
Germany  
13 Institutions

05   
France  
9 Institutions

### Contact us

Office of Int'l Affairs and  
Services (Undergraduate)

Tel : +82-2-920-7753/7994

E-mail : global@sungshin.ac.kr

Office of the Graduate School  
(Graduate)

Tel : +82-2-920-7065

E-mail : gras@sungshin.ac.kr

SUNGSHIN GLOBAL REPORT  
2024 Spring

## 1. Sungshin at a Glance

### ◆ 2024 QS University Rank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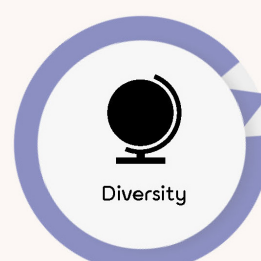
### ◆ Sungshin Quick Facts (Last Update: 2023)



55 Countries  
290 Institutions



800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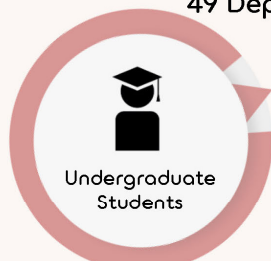
35 Nation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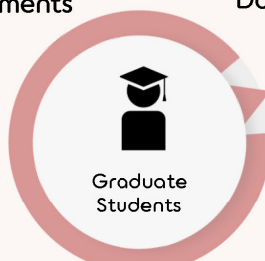
11 Colleges  
49 Departments



Master's 47  
Doctorate 28



9,971 Students



843 Students



468 Students

SUNGSHIN GLOBAL REPORT  
2024 Spring

## 2. Global Achievements

### ◆ Ministry of Education IEQAS <Excellent University> Accreditation

Sungshin received the highest accreditation of “Excellent University” for 9 consecutive years for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IEQAS)” conduc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mong the 4-year comprehensive universities across the nation, only 9 were selected for “Excellent University” accreditation, testament to Sungshin’s notable recruitment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 ◆ Korea-China Joint Cooperation Dual-Degree Program

The Korea-China Joint Cooperation program is select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to apply advanced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from overseas universities. Sungshin currently offers 4 dual-degrees, one of the top Korean universiti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the programs in operation. Since 2012, Sungshin Women's University has been offering dual-degrees in the ★Department of Fashion Industry with Hebe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Fashion Industry, Make-up Design major with Shandong Youth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Beginning in 2022, ★Department of Fashion Industry, Make-up Design major with Zhejiang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with Shanghai Art and Design Academy are in operation.



## 2. Global Achievements

### ◆ Sungshin Institute of Int'l Education – Korean Language Program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Sungshin Institute of Int'l Education is expanding its curriculums to include Korean Language Education not only for language training, but also for preparing Sungshin undergraduate and GKS students for further studies. Sungshin continues to offer quality Korean language courses; the Institute is also growing in terms of enrollment; currently, students from 15 different countries are studying Korean at Sungshin.

Semester	Period	Application Period				
		Online Application & Document Submission (Submit Originals)	Document Screening & Interview	Announcement of Acceptance & Fee Invoice	Tuition Payment Period	
2024	Spring	03.11 ~ 05.22.	2023.12.18. ~ 12.29.	2024.01.02. ~ 01.26.	2024.01.29. ~ 01.31.	02.01. ~ 02.05.
	Summer	06.10. ~ 08.19.	03.18. ~ 03.29.	04.01. ~ 04.26.	04.29. ~ 04.30.	05.01. ~ 05.03.
	Fall	09.09. ~ 11.22.	06.17. ~ 06.28.	07.01. ~ 07.26.	07.29 ~ 07.31.	08.01. ~ 08.05.
	Winter	2024.12.09. ~ 2025.02.21.	09.23. ~ 10.04.	10.07 ~ 10.25.	10.28 ~ 10.31	11.01. ~ 11.05.

### ◆ Sungshin Short-Term Programs

During 2022 and 2023, Sungshin welcomed 20 students each year from 13 universities in Japan for Korea-Japan Joint Higher Education summer short-term program named “Ultimate Styling with K-Beauty”. Through GKS Scholarship, flight tickets, dormitory and program fees were awarded for all students. Professors from the Department of Beauty Industry provided lectures and hands-on workshops, receiving great reviews from participants. Additionally, short-term programs with the theme of fashion, Korean language & culture were operated during summer break of 2023 for 1~3 weeks; students from Korea-China Joint Dual-Degree Program and other partner universities have participated in these programs.

Country	Program Name	Period
Japan	Korean Language Short-term Program	2024.02.15.(Thu) ~ 02.24(Sat), 9 nights 10 days
China	Hebei Institute of Communication (Beauty Short-term Program)	2024.07, 2 weeks
China	Hangzhou (Major Experience Short-term)	2024.07, 1 week
China	Korea-China Joint-Cooperation Short-term	2024.07, 1 week
Japan	Korea-Japan Government Scholarship Short-term Program	2024.08, 15 nights 16 days
Japan	Joshi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rt Major Experience Short-term Program)	2025.01.06.(Mon)-01.12.(Sun) / 6 nights 7days

## 2. Global Achievements

### ◆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Programs

Sungshin's globalization efforts, which includes recrui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have also been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Sungshin was selected for numerous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programs awar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GK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Excellent Exchange/Visiting Student △Korea-Japan Joint Higher Education are such scholarship programs endowed by the Korean government. Sungshin has so far recruited a total of 53 GKS international students. Furthermo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was newly selected for the '2024 GKS Excellent Exchange Student Scholarship Program' by NIIED. Through this scholarship, selected exchange student will be awarded with financial support for study expenses and roundtrip airfare to Korea.



### ◆ King Sejong Institut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KSIF) is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operates King Sejong Institut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educ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to the global commun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currently operates two King Sejong Institutes(KSI): KSI Shijiazhuang in China and KSI Rijeka in Croatia. Sungshin was selected as an 'Excellent Operator' of King Sejong Institute in 2022. In 2023, Sungshin is under the process to establish a new King Sejong Institute in Katowice, Poland with the University of Silesia. Upon final approval of KSIF, pilot operation is scheduled to begin during Fall semester of 2024.



## 2. Global Achievements

### ◆ Asian Contemporary Art Research Cent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Sungshin plans to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and project development with Asian high educational institutes specializing in art. Sungshin will carry out research projects, theoretical research residency programs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Center, 2 professors 何晋渭 (HE JINWEI) and 张子康 (ZHANG ZHEKANG), have donated their artworks. (Donated works will be displayed on Sungshin campus and open for view to visitors)

### ◆ Sungshin Outbound Students - 468 Students studying abroad

“ Sungshin ranks 13th in Korea and 7th among universities in Seoul ”

In line with the era of globaliz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ims to foster students in cultivating “global citizenship”, which includes being able to communicate in diverse languages. It has become crucial for students to attain global citizenship mindset, cultural tolerance and diversity. In 2023, approximately 20% of the freshman class have studied abroad. As of 2023 Spring semester, 105 exchange students were sent to 46 partner universities in 20 different countries, and in 2023 Fall, up to 131 exchange students have studied in 51 universities in 16 countries. In the summer of 2023, 114 students have taken short-term programs abroad, including the “Korea-China-Japan Asian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winter, 118 students studying overseas in programs including the “Korea-ASEAN Public Diplomacy Pioneership Program”. In this regard, total of 468 students have studied abroad during the 2023 academic year.

### 3. Global Outlook

#### ◆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is preparing to newly establish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xpected to begin recruitment for March 2025 exclusive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s lectured 100% in English, except for some major-related course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rack.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et the foundation for fostering global leaders and professionals.

Major	Track
Global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Beauty · Fashion Design	Korean Studies

#### ◆ New Application for Korea-China Joint Cooperation Program

Sungshin is applying for a new Korea-Joint Cooperation Program with Hebei Institute of Communication in the Department of Theater, Film, and Art Design.

University(China)	Department/Major	Annual Recruitment
Hebei Institute of Communication	Beauty Industry Theater, Film, and Art Design	60 students

#### ◆ Signing of New Dual-Degree Agreements

Sungshin is pursuing new 2+2 Dual-Degree Agreements with Guangxi Normal University,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and Jili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in China, open to all majors.

#### ◆ New Arts-related Majors in the Graduate School

Master · Doctoral Programs in Art for Chinese Students

Master	Doctorate
艺术策划与管理 Art Curating Management	美术学(融合艺术) Fine Arts(Integrative Art)
艺术与科技 Art and Technology	

★ Enrollment will begin Fall 2024 - Application period will open during Spring 2024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Graduate School (contact information on 1<sup>st</sup> page)

## 4. International Student Events

### ◆ ‘Sungshin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SISA)’

1.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launched in Fall semester 2023
  - a. Organization : President(1 International & 1 Korean Student), Planning Team, General Affairs Team, Cooperation Team, Public Relations Team
  - b. Roles
    - Provide channel for student networking
    - Support various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Cultural exchange, academic life in Korea, career programs, etc.)
2. International Student Year-End Party “2023, The Last Page”
3. 2023 Soojung Festival <PRISM> - Operate International Students booth



### ◆ Korean Cultural Experience (Jogyesa Temple, Seoul City Wall)

For Korean Cultural Experience in 2023, Sungshin organized Jogyesa Temple Stay and Seoul City Wall Walking Tour for international students, both with English guides. From these events, student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came together to network and also to learn and communicate abo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 ◆ 2023 International Student Year-End Party

To say farewell to 2023, many Sungshin international students (Undergraduate, Graduate, Korean Language Program) have gathered together to share about their experiences in Korea. SISA invited not only the international students but also professors and staff to share students’ appreciation delivered by a radio session. During the Year-End Party, students enjoyed various events such as mini team-games, talent show and various awards. As the Year-End Party was the first large-scale event to be hel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t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160 students, faculty and staff.



## 4. International Student Events

### ◆ Dormitory & Prayer Room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ngshin's 'Sungmiryo Dormitory', home to many international students, has been newly remodeled in 2023. To remember the hearts of many dono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Sungmiryo Renovation Fundraising Campaign', the donors' names are engraved on a plaque and signboards have been displayed at the entrance of the shared space and rooms. To embrace various religious backgrounds of our students, Sungshin Prayer Room is now open for students with all religions.



### ◆ Employment & Caree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1. Attended KOTRA 2023 Global Talent Fair for International Students (NIIE)
2. Attended ISF 2023 International Student Fair - 'Study, Work, Dream' (Sejong University)
3. Operate International Students Personalized Global Job Training
  - a. Strategies for employment in Korea for international students
  - b. Lecture to motivate students to pursue careers
  - c. MBTI Personality Test and result interpretation
  - d. Employment trends in Korean companies
  - e. Career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Daily life, career concerns, etc.)
4. Korean Employment Mentoring  
(SISA, Chinese Students)
5. Lecture on how to establish Start-ups (Chinese Students)



### ◆ Education about Regulations in Korea &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1. Languages offered: Korean, Mongolian, Vietnamese, Japanese, Burmese, Kazakh
2. Educational videos: Making video clips in 6 languages, in cooperation with Seongbuk Police Station and Sungshin on-campus studio
3. Contents: What to do in case of sexual harassment/violence,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gambling, illegal drugs, illegal part-time jobs, etc.

## 5. Global Alumni

### Together, We Make Sungshin

####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Professor Li Jing studied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from 2018~2022, and has graduated with a Ph.D. degree. Currently, she is teaching a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Beauty Industry, part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of Beauty and Life Industry. We truly admire her passion for Sungshin!

####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Yohana is currently pursuing master's degree at Sungshin and has already begun work life in Korea. Even though Spring 2023 was her 1<sup>st</sup> semester, she has accumulated many experiences through NIIED. From counseling Indonesian students to hosting job fairs, she is an inspiration for future international students coming to Korea!

#### Construction Company



Our alumni Maria from Colombia started off her career in Korea since August 2023. She was enrolled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2021~2023. Now, she is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ior design at a Construction Company. This company is well-known for interior designs in ZARA stores, the global fashion brand.

Sungshin Global Alumni Participation : <https://forms.gle/DTyozVmgmckCJsAv7>

#### Webtoon Company



Linh Dan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2018~2023. Beginning in summer of 2023, right after her graduation, she started working at a webtoon company in Korea, developing her career in K-Webtoon industry.



SUNGSHIN GLOBAL REPORT  
2024 Spring

## 6. University Development Fund

### ◆ University Development Fund Donation Campa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s a higher-education institution that brings academic transformation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innovation, contributes to social development, and practices shared values with the community. By donating to the University Development Fund, you become Sungshin's companion for life! Your donation will be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benefit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all students.

#### [ Development Fund Donation Bank Account & Pledge Template QR Co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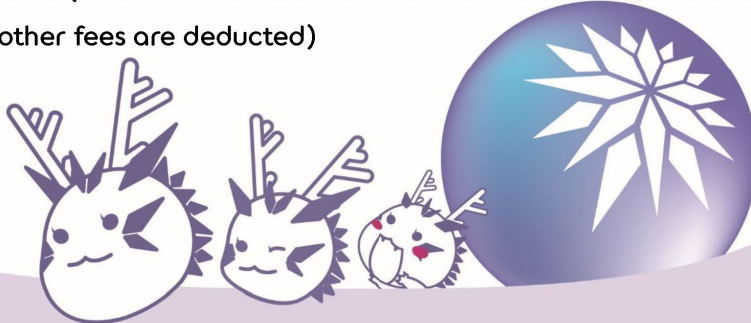
- Bank Account No. : KB KOOKMIN BANK 016737-04-005370
- Pledge (MS Word file) : Download QR Code

<https://www.sungshin.ac.kr/fund/14090/subview.do>



### ◆ Additional Announcements

- Overseas wire-transferred donations are not tax deductible.  
(Donation receipts can be issued if you have income and foreign registration number in Korea)
- If you transfer your donation from an overseas bank to a South Korean bank, please note that currency conversion(exchange rate) fees will be deducted.
- Sungshin will issue a Certificate of Donation according to your donation. (Final donation amount will be confirmed after wire-transfer and other fees are deducted)



## 내적 정결성과 부끄러움의 미학

### — 중국 연길과 용정의 운동주

강진호 | 성신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 1.

연길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2023년 코로나 격리 해제가 선언된 후 한 달이 되는 시점이었다.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연길까지는 비행기로 두 시간 남짓한 거리가 되었다.

지금의 연길 공항에서 오래전에 느꼈던 시골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서 미래로 훌쩍 건너뛴 기분으로 연길 공항을 나서자 시원하게 뚫린 대로 너머로 현대식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큰 건물과 아파트와 상가들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눈앞에 나타난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운동주는 시 「별헤는 밤」에서 북간도에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워한 바 있다.

그 북간도가 이제는 화려한 현대 도시로 탈바꿈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북간도가 운동주의 고향이 된 것은 운동주 가문이 초창기에 북간도로 이민을 왔기 때문이다. 증조부 윤재옥이 고향 함북 종성에서 북간도로 이주한 것은 1886년의 일이다.

당시 조선 이민단은 청국인 대지주의 땅이었던 명동촌 일대를 돈을 주고 산 후 마을을 이루었다. 명동촌의 ‘명동(明東)’은 동쪽에 있는 ‘조선을 밝게 하자’는 의미로서 10개의 마을을 합친 총칭이었다. 이들의 이민 목표는 척박하고 비싼 조선땅을 팔아 기름진 땅을 많이 사서 잘살아 보자는 것, 또 집단으로 들어가 삶으로써 간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 세울 인재 را 기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선각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민을 결행했던 것이다.

연길 거리에서 영어 간판은 전혀 볼 수 없다. 영어식 간판과 표현이 가득한 서울 거리와 대조되는 풍경이다. 간판의 특징은 한자와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는 점. ‘延吉 연길’, ‘依美仕洗衣 의미사세탁’, ‘中國工商銀行 중국공상은행’, ‘炬全汽配 거전부품’ 식으로 병렬 또는 상하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표기법은 최근 들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도 연변에서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상점의 간판 어문 표기는 반드시 한글을 쓰고 한자를 그 밑에 표기하게 되어 있었다. 모든

간판에 한글이 큰 글씨로 위에, 한자가 그 밑에 써어 있었는데, 시진핑(習近平)이 집권하고 중화민족공동체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선어언문자 표기 세척이 변경된 것. 핵심은 한글 표기 우위에서 한문 표기 우위로의 변경이다.

2023년에 만난 연길 사람 황춘봉 씨는 앞으로는 저런 이중 표기마저 사라지고 오로지 중국어로만 표기될 예정이며, 한국어 수업과 역사 수업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황춘봉 씨는 중국과 북한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받고 집에서는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성장한 세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 세대에 이르면 조선족이 서서히 소멸되고 한족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2.

연길 도착 후 내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옛 명동촌에 자리한 윤동주의 생가였다. ‘함경북도 회령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와 중국 용정시의 삼합진을 지나 용정으로 가는 길목’에 윤동주의 생가가 있다.

윤동주의 생가는 현재 잘 복원되어 있다. 마을 입구에 윤동주 생가 표지석이 세워져 있어 누구라도 금방 찾아갈 수 있다.

윤동주 생가는 1900년경에 그의 조부 윤하현 선생이 명동촌에 지은 것으로 방 10칸과 곳간이 달린 조선족 전통구조로 된 기와집이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이 집에서 태어났다.

윤동주는 1931년 3월 15일에 명동소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사진을 보면 한복 두루마기 차림에 교모를 쓴 옛된 윤동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윤동주와 소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같이 다녔던 그의 오랜 친구 문익환이 그 앞줄에 앉은 모습도 눈에 띈다.

용정은 치욕적인 한일합방 이후 독립투쟁의 근거지가 되었다. 3.1 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13일 이곳에서는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 대대적인 항일 시위를 벌이다 30여 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이를 계기로 간도 전역에 만세운동의 불길이 퍼져나갔다. 그때 사망한 13인의 묘가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 근처에 ‘3.13 반일 의사릉’에 묻혀 있고 그 언덕 위에는 일제에 의한 또 다른 희생자인 윤동주의 묘가 있다.



▲ 윤동주 생가

운동주의 27년 생애에서 4년간의 연희전문학교 시절은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시기였다. 운동주가 연희전문 시절에 처음으로 쓴 시가 「새로운 길」(1938)이다. 1938년에 9월 15일에 쓴 시 「아우의 인상화」는 연전에 입학한 해 여름에 집에 다녀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였다.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옛된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졸업을 앞두고 운동주는 그동안에 쓴 시를 묶어서 한 권의 시집을 내려고 했다. 「무서운 시간」, 「간판 없는 거리」,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별 헤는 밤」 등을 쓴 후, 써놓은 시에서 18편을 뽑았다. 그리고 시집 첫머리에 놓을 ‘서시’를 완성한 것이 1941년 11월 20일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과 태도를 담은 내용의 시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연세대 교정의 운동주 시비

이 시는 한국 시단이 얻은 불멸의 시구로 꼽히며 나중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시가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시인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이토록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중량을 건 정직함을 본 적이 없다.

이 시의 제목인 '서시'는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것으로 시인은 처음 이 시를 쓸 때 어떤 제목도 붙이지 않았다. 처음 자선 시집 출판을 위해 손수 18수의 작품을 골라내고 나서 맨 나중에 쓴 시이다. 어쩌면 이 시의 제목은 '무제'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정음사 초판본에서 처음으로 '서시'라는 제목이 괄호 안에 넣어져 붙여지고 그 아래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씌어져 시집의 첫머리에 실리게 된 후 계속 '서시'라는 제목으로 권두에 실리게 된다.

운동주는 연희전문 졸업 이듬해인 1942년 4월에 도오교의 릿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고는 교오도의 동지사대학에 편입하여 1943년 7월까지 두 학기를 다녔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하려고 간도에 있는 집에 전보를 치고는 7월 14일에 '사상 불온, 독립운동'이라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5년 2월 16일,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6개월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고 말았다.

운동주가 체포 구금되었을 때 면회를 갔던 사람은 당시 도쿄에 있던 당숙 윤영춘과 운동주의 소학교 동창이자 외사촌인 김정우이다. 윤영춘이 취조실에 들어가 보니 형사는 자기의 책상 앞에 동주를 앉히고 동주가 쓴 조선말 시와 산문을 일어로 번역을 시키고 있었다. 동주는 그때 "아저씨, 염려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곧 석방되어 나간다고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윤영춘은 그때 기껏해야 1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를 만난 최후의 순간이었다.

운동주 생가 근처 기념관에는 운동주가 감금 당해서 박해를 받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의 장면이 재현되어 있다.



▲ 후쿠오카 형무소의 수난 장면(용정 운동주 전람관)



▲ 동지사대 운동주 시비(2019년 방문 시의 모습)

### 3.

1996년 처음 연길에 왔을 때 백두산을 가는 길은 다섯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백두산까지 5시간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다. 2020년 12월 연길-백두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오른 장백폭포를 끼고 오르는 백두산 코스는 폐쇄되어 사라졌고, 대신 서파(西坡, 서쪽 백두산)와 북파(北坡, 북쪽 백두산) 코스가 이용되고 있다. 서파 산문에서 출발하여 야생화 군락지를 지나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1,440개의 계단을 오르는 길이 있고, 봉고차로 달려 정상까지 오르는 북파 코스가 있다.



▲ 1442개 계단을 올라 천지로 가는 길

천지, 전체 길이가 13.1 킬로미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373미터, 천지는 송화강의 기원이고 장백폭포가 되어 흘러내린다. 천지는 마르는 법이 없다. 사람들이 천지를 바라보며 저마다 감탄어를 내뱉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지만 천지는 부동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비 너머는 북한이다. 세상이 변하고 또 하늘길이 열려서 나는 다시 연길에 왔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음을 저 경계비가 깨우쳐 주고 있었다.

시인의 명성은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곁을 맴돌지만 국경의 경계는 여전히 완강하기만 하다.



▲ 장백폭포 (송화강의 기원지)

## The Aesthetics of Inner Purity and Shame

- Yun Dong-ju in Yanji and Yongjeong, China

Jinho Kang | Professor, Sungshin women University

### 1.

When I boarded the plane to Yanji, it was one month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quarantine was declared in 2023. The direct flight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Yanji is now just over two hours away.

The rural atmosphere that I felt a long time ago at Yanji Airport is not found at all. As I leave Yanji Airport with a feeling of skipping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 new city with large buildings, apartments, and shopping malls built in a modern architectural style appears in front of me.

"Mother, and you are far away in North Gando"

Yun Dong-ju missed his mother in North Gando in the poem 'A Night of Counting Stars'. The North-Gando is now a splendid modern city right in front of my eyes.

North Gando became the hometown of Yun Dong-ju because the family immigrated to North Gando in the early days. It was in 1886 that his great-grandfather Yun Jae-ok moved to North Gando from his hometown of Jongseong, Hambuk.

At that time, the Joseon Immigrant Corps formed a village after paying money to buy the area of Myeongdong Village, which was the land of the Qing Dynasty's great landowners. Myeongdong (明東) in Myeongdong Village was a collective name for 10 villages, meaning "Let's brighten up (明) Joseon located in the east (東)." Their goals for immigration were to sell their barren and expensive Joseon land to buy a lot of fertile land to live well, to make Gando our land by living in groups, and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ho could correct the fate of the inclined country. In other words, they made the decision to immigrate with a very visionary consciousness.

### 2.

After arriving in Yanji, the first place I headed to was the birthplace of Yun Dong-ju, located in the former Myeongdong Village. Yoon Dong-ju's birthplace is located on the "path to Yongzheng after crossing the Tuman River from Hoeryong in North Hamgyong Province and

passing through Samhap Town in Longjing, China". Myeongdong Village, Jishinyang, Yongjeong City, Jilin Province, China.

Yun Dong-ju's birthplace is currently well restored. There is a marker stone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so anyone can easily find it.

Yun Dong-ju's birthplace was built around 1900 in Myeongdong Village by his grandfather, Yoon Ha-hyun, and is a traditional Chaoxianzu(Korean ethnic group in China with Chinese nationality) tile-roofed house with 10 rooms and a barn. Yun was born in this house on Dec. 30, 1917.

Yun graduated from Myeongdong Elementary School on Mar. 15, 1931. In the graduation photo, you can see a young Yun wearing a hanbok durumagi and a student hat. Yun and his old friend Moon Ik-hwan, who attended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together, are also notable sitting in the front row.

Longjing became the center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after the disgraceful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On March 13, 1919, shortly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a crowd of more than 20,000 people gathered here to stage a massive anti-Japanese protest, resulting in more than 30 victims, which spread the flam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out Gando. The tombs of the 13 people who died at that time were buried in the "March 13 Anti-Japanese Martyred Tomb" near the village of Myeongdong, Yun Dong-ju's hometown, and on the hill is the tomb of another victim, Yun Dong-ju.

Yun's four years at Chosen Christian College were the richest and most liberating years of his 27-year life. The first poem Yun wrote while at Chosen Christian College was "A New Way" (1938). The poem "Impression of Young Brother," written on September 15, 1938, was based on what actually happened when he went home during the summer of the year he entered the college.

A cold moon frosts on his red forehead.

My brother's face is a sad picture.

I stop in my tracks

and take his frail hand

"What will you grow up to be?"

"Become a man."

His clumsiness is truly a clumsy answer.

I slowly let go of his hand

and looks into his face again.

The chilly moon is wet on his red forehead  
My brother's face is a sad picture.

Ahead of graduation, Yun Dong-ju tried to publish a collection of poems by combining the poems he had written so far. After writing "Frightening Time", "The Street Without The Signboards", "Again, another morn", "Cross", and "A Night of Counting the Stars", he selected 18 poems from his collection. It was on November 20, 1941, that he completed the "Prelude" that would be placed at the beginning of his poetry collection. It was a poem that reflected on his life so far and contained the direction and attitude of his future life.

Look up to the sky until the day I die  
Let me have no shame  
Even winds in the foliage  
Pained my heart  
With the heart of singing stars  
I will love all dying things  
And walk the path given to me

Tonight, again, the stars are brushed by the wind.

This poem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mmortal verses that the Korean poetry group achieved, and it would later become the most beloved poem by the people. Until then, we have never had a poet who was suffering from the winds in the foliage, and we have never seen such honesty in a poet who put his whole being and his whole weight.



In April 1942, the year after graduating from Chosen Christian College, Yun Dong-ju entered the English department of the Literature Department of Rikkyo University in Tokyo, attended one semester until July, and transferred to Doshisha University in Kyoto, where he attended two semesters until July 1943. On July 14, 1943, he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on the charge of 'ideological dissent, independence movement' after sending a telegram to his home in Gando to return home for summer vacation. On February 16, 1945, six months before the liberation he had hoped for, he died in prison.

### 3.

When I first came to Yanji in 1996, the road to Paektu Mountain took five hours. Five hours to Paektu Mountain is now a thing of the past. In December 2020, the Yanji-Paektu Mountain highway opened, making it a two-and-a-half-hour drive.

The Paektu Mountain course, which I used to climb along the Jangbaek Falls, was closed and disappeared, and the Seopa (Western Paektu Mountain) and Bukpa (North Paektu Mountain) courses are being used instead. Starting from Seopa entrance, passing through the wildflower colony, there is a route to change buses at the transfer center and climb 1,440 stairs, and there is a Bukpa course to the top by running a full-size van.

Heaven Lake, 13.1 kilometers long with a depth of 373 meters at its deepest point, Heaven Lake is the origin of the Songhua River, which flows down as the Changbai Waterfall. It never dries up. People were looking at Heaven Lake, exclaiming words of admiration and taking pictures of it, but it was still and silent.

North Korea is beyond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the border monument in North Korea. The world has changed, the sky has opened up, and I'm here again in Yanji, but the border monument was reminding me that there was something that had not changed.

The poet's reputation hovers around us beyond the boundaries of space and time, but the boundaries of the border remain stub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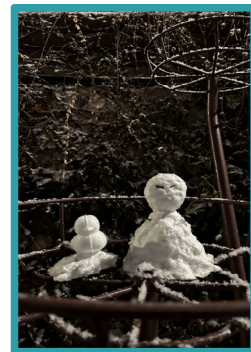
##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

응웬 김 장미 | 성신여대 23년 겨울학기 한국어 과정 진학대비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응웬 김 장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다시 베트남으로 귀국하셔서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부하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미라는 이름이 베트남에 많이 없는 이름이었지만 최근에 많은 유학생들이 자신이나 자녀에게 저와 같은 한국식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네가 꽃길만을 걷기를 원치는 않는다. 흙밭을 걷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뜻으로 장미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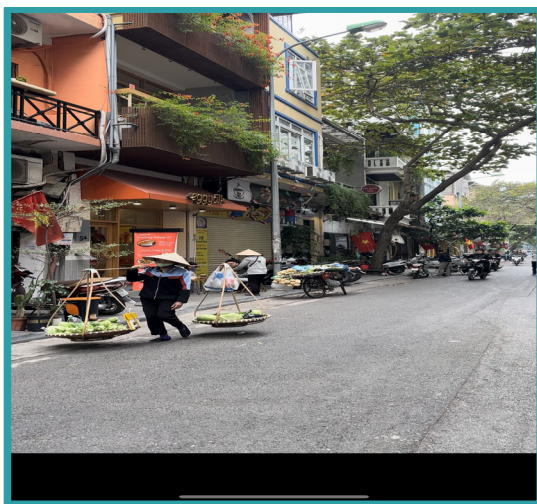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의 예상대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고 있었는데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전히 어려웠고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어 3급을 공부한 저는 아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책에서 배운 한국어와 현실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가게 사장님과 대화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저 혼자 오전 수업을 듣고 룸메이트들은 모두 오후 수업을 들어서 조금 외로웠는데 그래도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은 매우 사랑스럽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한국, 중국, 일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문화와 음식을 자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게도, 제 생일에는 친구들이 피자와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 마침내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눈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눈이 내리는 거리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눈사람 만들기도 해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싸움도 해 보았습니다.



▲ 처음 본 눈과 눈사람 만들기

지금까지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매일 오토바이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가까운 곳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보행자 도로로는 좁아서 걸어 다니기 위험하지만, 한국에는 대중교통 수단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므로 보행자를 위한 도로와 시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걸기가 매우 피곤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걸기가 건강에도, 환경에도 아주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베트남인들에게는 낮잠 문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점심식사를 한 후에 일반적으로 낮잠을 잡니다.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덥고 사람들이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낮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학교는 보통 아침 6시 45분이나 7시에 문을 닫는데 한국에서는 오전 9시나 10시부터 공부하거나 일하기 때문에 점심 후 잠깐 쉬고 다시 일하는 것입니다. 혹시 수업 시간에 베트남 학생이 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3월에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9개월 만에 토익 6급을 받았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과 국제교육원의 유익한 수업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운정 캠퍼스에서 열린 학교 축제에 참가해 좋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코코넛 케이크, G7 커피, 베트남 전통 게임, 아오자이 소개 등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선배님들로부터 성신여대 프로그램을 소개받았고 그때 흥미를 느껴 성신여자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입학 서류를 준비할 때 선생님들께서 한국어 과정 학생들이 복잡한 절차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고, 특히 국제교육원의 장미경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과 응원을 주셨습니다.



▲ 활기찬 베트남 거리



▲ 달콤쌉싸름한 한국 거리

저는 그동안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 특히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유학생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유학생의 학교생활, 학교 식당에서 주문하기, 한국문화 체험 등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한 뒤 드라마 PD가 되어 회사나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의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알려서 한국과 베트남이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두 나라가 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이 글은 성신여대 국제교육원 장미경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일본사회의 민족적 배타주의와 3세대 자이니치

- 황영치의 『전야』를 중심으로

김예니 |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수

2005년부터 일본에서는 혐한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을 비하하는 책을 쓰면 어느 정도 판매 부수가 보장되기에 출판사마다 혐한서적을 쓰려고 혈안이다. 일본 사회에서 혐한은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듯하다. 혐한 현상에 기대어 혐오를 더 선동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닦는 극우 정치인들 역시 과거보다 현저히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황영치의 『전야』(2015)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며 혐한정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어 일본 사회의 민족적 배타주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혐한의 문제와 3세대 자이니치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역사적,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 한다. 특히, 우경화된 일본 사회에 맞서 대안을 모색하는 작가의 치열한 현실 인식은 현재의 혐한정서가 파시즘 부활의 전조일 수 있으며 이에 맞서는 희망의 길을 열지 않는 한, 『전야』의 끝은 폭력과 혐오, 그리고 전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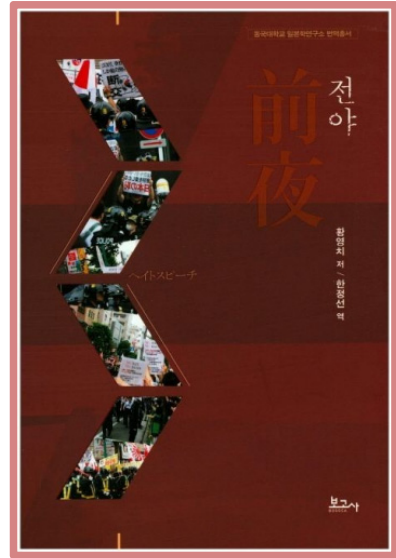
『전야』는 포르노가 “표현이 아니라, 행위다”라고 주장한 어느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끌어와 혐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해석한다. 3세대 자이니치인 주인공 봉창은 인터넷을 통해 혐한 발언 동영상 보면서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을 떠올리는데 그 책이 바로 반(反)포르노 운동가의 책이다. 그 책은 모든 말과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옹호할 수 없는데, 포르노는 보고 즐기는 행위로 배설의 행위이지, 그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고, 이를 즐기는 사람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을 범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판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혐한발언 동영상을 보며 반(反)포르노 운동가의 책을 떠올린 것은 혐한을 외치는 일본 보수우익 특히, 넷우익의 선동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고 단지 재미를 위한 배설행위인데, 이는 ‘그럼에도 옹호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재미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폭력이자 반인륜적 행위라는 것을 비판하고자 함이다. 결국, 그들의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옹호할만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소수자를 향한 폭력이라는 점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사회의 소수자인 봉창과 순자가 공포에 떠는 이유는 이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본 사회 자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묵인과 인터넷 안 과장된 동조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 왜냐하

면 일본인과 일본 사회가 가장 불편해하는 식민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성가신 존재가 바로 재일조선인이니까.”(96쪽) ZT그룹의 실제 모델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하 재특회)은 사실, 반(反)한, 반(反)재일에 관한 글을 쓰는 넛우익이 외국국적 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토대로 한 ‘행동하는 배외적인 보수운동’과 결합한 결과물이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에게 특권이라는 말을 덧붙여 오히려 일본인이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사실과 성찰, 사유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분노를 터트릴 표적이고, 재미의 대상이다. 민족적 우월성을 입장하기 위해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소수자를 표적 삼아 자신의 사회적 열패감을 보상받으려 한다.

현대 일본 사회는 장기 불황과 구조적 모순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원한의 정치를 통해 자이니치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지목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형국이다. 『전야』의 또 다른 주인공, 자이니치 3세 히로키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진정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 ZT그룹에 가입한다. 하지만 대단해 보였던 ZT그룹, 그 그룹의 대표자인 기쿠하나는 대단하기는커녕 볼품없고 비논리적이며 겁쟁이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히로키는 어느 사회에도 속할 수 없는 3세대 자이니치의 방황과 고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통해 넛우익들이 실제 무척 허약한 지반 위에 놓여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과장되고 정치 우익에 의해 보호, 육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데모는 정당한 요구를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의 비호하에 민간인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폭력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마저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기쿠하나를 보면서 히로키는 정신적 강간이라 여기며 의심한다. 그리고 그런 히로키 앞에 반목했던 2세대 자이니치 아버지와 조선학교 출신의 봉창과 순자가 나타난다.

황영치의 후기처럼 <절망적인 카나리아의 상황>을 돌파할 희망은 있는가? 『전야』에서는 폭력에 맞선 대안폭력은 실패한다. 그리고 힘들고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결국, 소수자들의 연대가 대안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으로 나뉘어 있고, 각자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자이니치들이 함께 험한발언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것을 제안하고 그 시작을 알리며 끝을 맺었다. 그리고 봉창과 순자가 히로키를 만나러 가면서, 그리고 2세대 자이니치 아버지가 3세대 자이니치 아들을 만나러 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2세대 자이니치인 도쿄케이자이대학 현대법학부 교수 서경석은 “재일조선인이 느끼는 억압이나 차별, 불안감이 없어지면 (재일조선인의) 민족의식도 없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계속 식민 지배를 추종하고 미화하고 피해자인 조선인을 차별하는 한, 민족의식도 없어지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계속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일본 사회의 제국주의에 대한 항수, 군국주의로의 열망, 민족적 배타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이니치의 민족주의적인 저항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황영치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저항의 전략으로 소수자들의 연대를 역설하고 있다.



현시기 『전야』는 한국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야』의 주제의식은 일본 사회에만 국한된 교훈은 아니다. 불황의 그늘 속에 미래의 희망을 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안에서 극우적인 활동들을 이어가며 그들의 힘을 과장하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모든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적 효과에 대해 따져 정치적 논쟁과 민중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싸우는 것이 이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의 원리는 배제와 혐오가 아닌 시민들의 연대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원리여야 할 것이다.



▲ 혐한 정서와 시위 현장

## 부초(浮草)처럼 떠도는 시 · 공간의 순례

- 박미하일의 『사과가 있는 풍경』을 중심으로

방금단 |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수

드미트리 리-마노프가 사는 세상은 온통 회색빛 그 자체이다. 드미트리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조선에서 연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강제이주를 경험하면서 억압과 공포의 흔적들을 안으로 눌러 담고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국적을 감추고자 했으며, 드미트리가 태어났을 때 자신을 전혀 낯지 않았다는 점을 좋아했다. 따라서 드미트리가 도시를 배회하며 사는 것은,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어리석다 못해 송고하기까지 하다. 세상의 편견, 멸시, 위협, 폭력, 적대, 무시, 버림, 속임 등이 난무한 도시에서, 그는 순수, 정직, 연약, 사랑, 순종, 믿음, 베품 등의 고결한 삶의 자세로 고행에 가까운 ‘순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드미트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한 아이의 어머니면서 사진작가인 예밀리야와 강렬한 첫사랑을 했다. 그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건설사의 보조 노릇을 하며 살았다. 드미트리는 동네에 떠도는 온갖 입방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 그녀를 사랑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일 년 동안 동거했었던 예밀리야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을 망칠 수 없다며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적은 편지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보이그랜더’ 사진기와 컬러로 찍힌 ‘세 개의 사과’ 사진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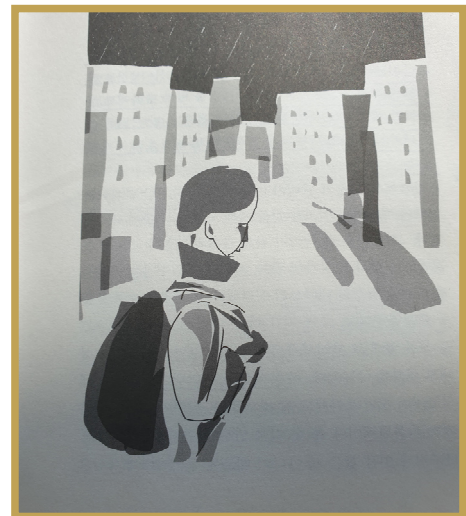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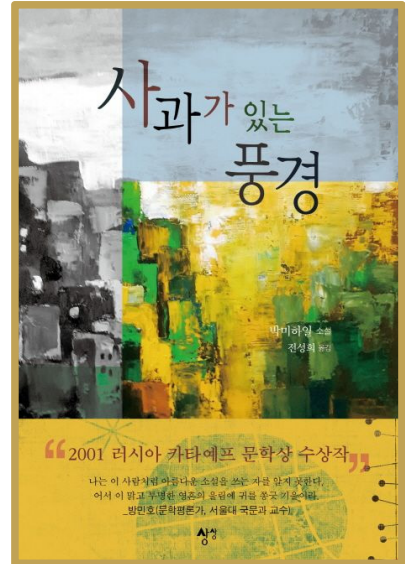
드미트리가 도시를 떠돌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는 프로스펙트 미라 역 근처에서 자신과 흡사한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은 마네킹에 다름 아니었다. 즉 이는 거친 세상에 대적할 힘이 없는 그의 순수성이 이미 지쳐서 마네킹처럼 텅비고 무감각해졌음을 의미한다. 드미트리는 반가움에 마네킹에게 손을 내밀다가 목을 부러뜨리고 만다. 이 사건으로 그는 경비에게 ‘빈털터리 불량자’와 ‘이방인’ 취급을 동시에 받는다. 경비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고려인 여성 알레프리나 김에게 가서 돈을 빌려와 마네킹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알레프리나 김을 찾아가지만, 그녀는 드미트리가 고려인이 아닌 ‘튀기’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러시아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신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예밀리야에게 배운 흑백 사진을 찍는 것으로 살아가는 동안, 드미트리의 성격은 무척 까탈스럽게 변해갔다. 흑백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메머드처럼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 일을 해나가

고 있으나 그를 채용해 줄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찾아가지만 환영 받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숙자와 불량자들의 위협이나 업신여김에도 순응하면서 도시의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간다.

음산한 가을날 아침, 그는 일자리를 찾아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예밀리야의 손과 흡사한 손을 가진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 이 손은 드미트리를 현실에 뿌리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인의 손으로, 가장 절망의 순간에 처한 드미트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손이기도 하다. 그 손을 가진 여인의 이름은 '알리나'이다. 드미트리와 친해진 알리나는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는 리처드의 사무실에 흑백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드미트리의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준다. 리처드는 드미트리가 까탈스럽게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을 알고, "20년 후 한 작품만 남으면 그 작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 이때 그는 예밀리야가 남겨준 '세 개의 사과'라고 답한다. 리처드는 '일종의 시간 거래'라고 하면서, 컬러로 그려진 '세 개의 사과'가 있는 사진을 천 달러에 사겠다고 하지만 드미트리는 이를 거절한다. 그가 정주하면서 사랑받았던 순간은 예밀리야와 함께 있었던 일 년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드미트리가 흑백사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알리나는 '흑백사진이 '첫사랑'과 함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감해주면서 자신의 첫사랑을 말한다. 알리나는 열여덟 살에 스물세 살이 많은 아버지의 친구 막시모프를 사랑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온 막시모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거절당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첫사랑'의 막시모프와 같은 남자를 찾아 여러 번의 결혼과 좌절을 경험했었다고 고백한다. 드미트리는 세상의 편견과 비웃음 그리고 버림받았던 강렬한 첫사랑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위로 받는다. 이때, 드미트리는 예밀리야가 남기고 간 '세 개의 사과' 사진 속의 사과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예밀리야와 함께했던 시간, 공간, 추억 그리고 아파했던 모든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천상의 별'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비로소 드미트리는 알리나와 사과들의 이야기를 통해 20여 년 동안 '시·공간의 순례자'처럼 떠돌았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때로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연약하고 소박하며 덧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이다.



▲ 회색빛 도시와 방랑자

## 성신여대, 개방형 복합 공간 ‘임명섭 글로벌 라운지’ 현판 제막식 및 오픈식 개최



▲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포트론텍 임지운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

2023년 8월 30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강북구 미아동 소재) 지하 1층에 개방형 복합 공간인 ‘임명섭 글로벌 라운지’를 조성하였다. ‘임명섭 글로벌 라운지’는 성신여대 구성원을 비롯해 운정그린캠퍼스를 방문하는 교내외 모든 관계자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공간으로, 광학필름필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광학 부품 전문기업인 ㈜유포트론텍이 고(故) 임명섭 회장의 경영 철학과 유지를 받들어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조성됐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성신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고(故) 임명섭 회장님과 ㈜유포트론텍 임지운 대표이사님께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임명섭 글로벌 라운지’를 찾는 모든 성신 구성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운 ㈜유포트론텍 대표이사는 “선친인 고(故) 임명섭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조성된 ‘임명섭 글로벌 라운지’에 성신여대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세계의 언어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어라는 소통 도구를 통해 깊이 있게 소통하며 아낌없이 기량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故) 임명섭 회장은 생전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학 연구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고인의 뜻을 기려,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 전통 문화예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학 연구 및 세미나를 추진하고, 한국학 관련 해외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학술연구비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가. 지원자격 및 신청 조건

- 재외 한국학 기관(대학 및 연구소) 소속 교원
- 재외 한국학 연구원과 공동연구 수행 국내 교원

나. 신청기간 : 2024.02.01. ~ 2024.03.30.

다. 연구기간 : 2024.04.01. ~ 2025.03.30.(1년)

라. 신청서 양식 : 본 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ngshin.ac.kr/shks/index.do>)

마.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계획서) 작성 후 메일 송부 (shks@sungshin.ac.kr)

바. 연구비 : 삼백만 원 내외

#### ■ Research grant application guide

Sungshin-Im Myeongseop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supports research fund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research-fund-support-project plan.

A. Eligibility

- Faculty members affiliated with overseas Korean studies institut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 Domestic faculty members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ers

B. Application period : 2024.02.01. ~ 2024.03.30.

C. Research period : 2024.04.01. ~ 2025.03.30.(1year)

D. Application form : Refer to the institute's website

E. How to apply : Fill out the application (research plan) and send it by e-mail (shks@sungshin.ac.kr)

F. Research expenses : around KRW 3,000,000



성신 임명섭 한국학 연구소는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한국어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

주소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수정관 B-718호 ☎ 02-920-7992

홈페이지 <https://www.sungshin.ac.kr/shks/index.do>